

용호2동 복합청사 개소… 행정·복지·문화 한자리

12월 8일부터 업무… 3~4층 극장식 마주침공간 등 주민소통 공간 눈길

행정, 복지, 문화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용호2동 복합청사가 문을 연다. 12월 6~7일 기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전 작업을 거쳐 8일(월)부터 복합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데시앙해링턴플레이스파크시티 아파트 옆에 조성된 용호2동 복합청사는 총 사업비 103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2240㎡ 규모로 건립됐다.

복합청사는 인근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주민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

한 공간적, 기능적 배치가 눈길을 끈다.

1층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나머지 층은 주민 생활과 관련된 문화·편의시설로 조성됐다. 2층 작은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 3층은 주민자치프로그램·회의실 4층은 생활문화센터 5층은 대강당이 마련됐다. 특히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마주침공간은 통유리를 바라보며 극장식 계단 형태로 조성돼 뛰어난 개방감이 눈길을 끈다. 작년 연말 개소

한 용호2동 복합청사의 마주침공간과 동일한 구조로 주민들의 자유로운 휴식과 영화 상영, 음악회, 연주회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작은도서관은 스테디카페 형태를 결합해 도서 대여 외에 자율학습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280여㎡의 대강당은 강의, 설명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한편 지은 지 50년 된 기존 동사는 예비군동대 등으로 사용된다.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 ☎607-4808



12월 8일 업무를 보는 용호2동 복합청사 전경

■용호2동 복합청사

1층	행정복지센터
2층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3층	마주침공간, 주민자치프로그램실
4층	생활문화센터
5층	대강당

*주차 17면(1층, 지하1층)



3~4층 마주침 공간



5층 대강당



용호2동 오륙도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협약

남구는 용호2동복합청사 2층에 ‘오륙도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한다. 이에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꿈꾸는 아이들(이사장 허요한)과 위수탁 협약식을 가졌다. 오륙도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등 돌

봄이 필요한 초등학교생에게 방과 후 간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원은 20명이며 한달 이용료는 10만원 이내이다.

가족친화과 ☎607-3391

오륙도다함께돌봄센터 ☎622-2999

‘남구형 스마트 횡단보도’ 용호사거리에 제3호 설치

대연·감만동 이어 3번째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남구형 스마트 횡단보도(사진)’가 용호사거리

에 설치됐다. 대연동, 감만동에 이어 3번째 스마트 횡단보도이다. 용호사거리는 인근에 상가와 버스정류장, 주거지가 밀집해 보행자 통행이 많고 어르신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이 높았던 구간이다.

남구는 사업비 2억여원(특별조정교부금)을 들여 교차로 4곳에 ▲안전가

이드 라인볼라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의 교통시설물을 설치했다. ‘안전가이드 라인볼라드’는 보행신호 때 횡단보도 양쪽 가장자리 라인에 녹색 빛을 투사해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라인 안쪽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시설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자동 영상 검지 분석 기술을 적용해, 보행자가 적색 신호 시 차도로 진입하면 음성 경고가 나와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도 침범을 예방할 수 있다. 남구는 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24년 3월 연포초등학교 정문 앞에 ‘광복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시작으로 관내에 스마트 횡

단보도 설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교통정책과 ☎607-4565

문현동 배수지 등 3곳 천연 목재데크길 조성

남구는 문현동 배수지, 황령정 체육공원, 세연고 뒤편 일원에 목재데크 조성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문현동 배수지는 공중데크로 약 130m, 황령정 체육공원과 세연고 뒤편 계단은 각각 40m와 20m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내구성이 높은 천연 목재데크로 조성했다. 이번 시설 개선으로 황령산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원녹지과 ☎607-4784



문현동 배수지



세연고 뒤편



황령정 체육공원

유엔남구대학로자율상권 내 청년창업가에 임차료 지원

13명 선발… 6개월간 매달 최대 100만원씩 지원

경성·부경대 대학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엔남구대학로자율상권이 청년창업가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 가운데 하나인 청년 창업지원 임차료 지원사업은 자율상권 조합에서 지난 9월, 10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상권 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청년창업가 13명을 선발했다. 선정된 청년창업가들에게 월 임차료의 70% 범위 내 최대 100만 원

이 6개월간 지원된다. 경성·부경대 대학로 용소로14번길 일원 임대인 및 상인들로 구성된 조합은 향후 5년 동안 상인역량강화 및 맞춤형 컨설팅, 청년창업지원, 팝업스토어 유치 등 상권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번 청년 창업가 임차료 지원사업가 첫 단추로 평가된다.

일자리경제과 ☎607-4474

남구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시범 설치

남구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남구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이 완료돼 관내 주요 지역에 시범설치됐다.

주민 편의성, 환경적 요소,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남구형 표준디자인은 높은 시인성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가로시설물 3종(방향 지시 보도판 인블럭, 도로포장 스탬프, 자전거 거치대)와 안내시설물 4종(무단투기 경고문,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문, 우리동네 알림판 현판, 가로등 현수기) 등 총 7종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해 도시 이미지를 통일감 있게 조성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과 ☎607-5622

2025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회

동방파크, 유창그린, 데시앙해링턴 최우수

2025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동방파크(300세대 미만)와 유창그린1,2차아파트(300~599세대), 데시앙해링턴플레이스파크시티(600세대 이상)가 최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됐다. 우수 공동주택에는 대연동원아파트, 대연경동메르빌아파트, 데비치푸르지오써밋이 각각 선정됐다.

자원순환과 ☎607-4452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시상과 함께 총 3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경진대회는 지난 4~10월 음식물폐기물 총 발생량을 기준으로 주민 1인당 배출량(70%)과 전년 대비 감량률(30%)을 산출해 단지별 세대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눠 심사했다.

■구청 브리핑

타 지자체 생활 속 세무행정 배우러 남구 방문

최근 남구의 지방세 징수시책과 납세 편의 사업들이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포항시 남구는 지난 11월 5일 남구청을 방문해 지방세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세무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환급절차를 돕는 ‘손에 쏘~옥 환급서비스’를 비롯해 ‘찾아가는 체납 관리’, ‘효(孝) 문화형 자동이체 안내문 발송’,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 남구의 우수 세정사례의 추진 내용을 공유했다.

세무2담당관 ☎607-4232

남구·(주)월드다가치, 외국인 정주지원 업무협약

남구는 외국인 정주지원과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해 (주)월드다가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월드다가치는 남구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우선 제공하는 등 정주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남구는 외국인 대상 시책 안내 등 홍보를 돕는다. 협약 체결로 외국인 대상 정보 접근성과 생활 편의가 확대되고, 지역 차원의 글로벌 정주환경 또한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월드다가치는 2024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부산 및 경남 지역의 대학교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 AI 기반 외국인 소통 플랫폼 ‘다가치’ 앱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지원과 ☎607-4116

12월 12일까지 오륙도페이 부정유통 일제단속

2025년 하반기 오륙도페이 부정유통 일제단속이 11월 24일~12월 12일 진행된다. 위반 유형은 △부정수취·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불대우 등이며 이상거래 자료추출 조사와 현장방문 사실조사로 실시된다. 위반 시 가맹점 등록취소와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치한다.

일자리경제과 ☎607-4475

남구 착한가격업소 전기료 최대 45만원 지원

남구가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구 착한가격업소 66곳을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45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현장 점검과 심사를 거쳐 지정·관리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전기요금 지원 외에도 인종현판 제공, 소모품(종량제봉투·물티슈 등) 지원,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일자리경제과 ☎607-4477